



계란 세례 우산 방어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 관련 설명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달걀이 날아들자 경호요원들이 우산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 6시간 발똥인 '국정 컨트롤타워'

### 황교안 총리 대통령 부재 중 성주 방문 욕설·물병 던진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6시간 이상 발이 묶였다.

황 총리는 성주군민들이 삭발을 하고 촛불집회를 하는 등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자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날 밤 늦게 성주(行)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성주 군민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일부 주민들은 황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결국 주민설명회는 파행했다.

특히 주민들이 황 총리가 탄 차를 포위하고, 한 주민은 트랙터까지 몰고와 주차장 출구까지 봉쇄해 황 총리는 오전 11시40분부터 무려 6시간30분 동안 성주군청에서 발이 묶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총리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성주에 간 것인데 '대화와 소통'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격한 반발로 대치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황 총리가 탄 미니버스가 주민들에 둘러싸여 오토기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총리실은 황 총리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 방문을 위해 전날 출국해 국내 부재 중인 상황에서 황 총리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인지라 외교·안보 사안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총리가 직접 '지하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총리가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처를 통할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황 총리가 성주군청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외교·안보 관련 긴급한 상황이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이다. 황 총리를 수행한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함께 발이 묶여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시에 총리가 저렇게 장시간 발이 묶여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황 총리의 이 날 일정은 출출이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정부업무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오후 6시에는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예정되었지만, 서울에 올라오지 못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황 총리가 그 자리가 있으면서도 여러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등 (정상적) 직무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야 사드 긴급현안질문 불꽃 공방 예고

### 국회 내일부터 이틀간...野 전투력 높은 의원들 집중 배치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전투력이 높은 의원들을 집중 배치, 일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반격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하면서 대통령 해외출장 중 '국정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對中) 외교·경제관계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이른바 '사드 괴담'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긴급 현안질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민심이 '정치적 뒷받침'인 TK(대구·경북) 전방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정부 측으로부터 확인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사드 관련 의견을 갖춘 국방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문자

선정에 막바지 고심 중이며, 오는 18일께 명단을 확정해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현안질문에서 군사적 실효성, 주변국과의 갈등 관리, 국론 분열 문제, 경제적 피해 등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이종걸·김진표·설훈 의원 등이 배치됐고 김경협·정재호·김영호·백해련·강병원·이재정·금태섭 의원 등도 공격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신청자가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과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나선다. 정 의원은 광주일보 특별기고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강력 비판한 바 있다.

둘째 날엔 육군 준장 출신 김중호 의원과 김경진 의원이 질의한다.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사드 관련 성명에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든 바 있어 직접 질문자로 나설지 주목됐으나 명단에서 빠졌다.

정의당에선 '군사 전문가'인 김중대 의원이 나서 국회 사드 특별기구 설치를 주장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30년간 앞 못 내다 본 인구정책 보육 환경 개선...출산율 높여야

### 인구절벽 '지방소멸' 성장동력이 꺼져간다

#### <4> 정부·지자체 대책

저출산 현상은 오래 전부터 시작됐지만 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이 갑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무분비 속에서 이른바 인구절벽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2060년 생산가능 인구 40% 감소...총혼·대학 등 비교 군인도 부족=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청년층이 줄어드는 저성장의 위기는 지난 30여년간 치밀하지 못했던 인구정책의 결과다. 지난 1983년 가입 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기의 숫자, 즉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당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생아는 줄어들고 청년은 노년층으로 유입되면서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재 합계출산율 1.21명의 상태가 이어진다면 3695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 3089만명, 2060년 2187만명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투입될 생산요소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가 늘어남을

### 2060년 생산가능 인구 절반 줄어 학생·군인 없는 암울한 고령사회

### 결혼 적령기 젊은층 일자리 확대 노인 등 복지 안전망 확충도 시급

뚫는다. 경제성장률도 2001~2010년 연평균 4.42%에서 2051~2060년 1.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미래는 생각보다 암울하다. 학교는 정원을 못채우고 군대는 입대할 청년이 부족해 국가 방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초·중·고·대학에 다니는 학생인구(6~21세)는 30년 뒤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의 군대 규모와 군 복무기간(21개월)을 유지할 경우 병력자원은 2022년부터 부족해진다.

◇만혼 분위기 바뀌 출산율 높여야=정부는 사회에서 확산되는 만혼(晩婚) 현상의 차단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분위기를 바꿔 이른 결혼이 많아지면 그만큼 첫 아이의 출산이 빨라지고 이는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고 건강보험의 출산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작년 1.21명 수준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리려면 저출산·고령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노동 개혁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꼽힌다.

만혼·비혼(非婚)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할 경우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안정성 제고와 젊은 층의 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도 중요하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노인 인구는 현재 662만명에서 2030년에는 1269만명, 2050년에는 1800만명으로 급증한다.

광주시민단체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결혼 적령기의 젊은층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담없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특단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쌍용자동차**

**Samba** 쌍용자동차 **쌘바 에디션** 탄생

쌘바 에디션 타고 승리의리듬을 타라!

스타일을 실려줄 쌘바 스페셜 데칼

리미티드 에디션 원로고 엠블럼

눈부시게 빛나는 골드컬러 휠 라이너

**KORANDO C** 쌘바 스페셜 데칼, 쌘바 제타, 원로고 엠블럼, 스키드 플레이트, 골드 컬러 휠 라이너, 스페셜 휠, 인더캐비 프라임 사운드 시스템, 파워윈도우, LED 헤드라이트, LED 와이퍼 모터

**KORANDO SPORTS** 쌘바 스페셜 데칼, 쌘바 제타, 원로고 엠블럼, 스키드 플레이트, 스키드 플레이트, 골드 컬러 휠 라이너, 스페셜 휠

**TIVOLI** 원로고 엠블럼, 스키드 플레이트, 스페셜 휠, 스페셜 휠, 골드 컬러 휠 라이너, 스페셜 휠, 인더캐비 프라임 사운드 시스템, 파워윈도우, LED 헤드라이트, LED 와이퍼 모터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점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동광주 515-1900	광주양산 673-8900
전남점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영암 473-3456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장성 395-0007	담양 383-5811	완도 554-4545
	영광 353-9500	보성 852-2892	광양 761-8900	동광양 791-0071	무안 454-0099	고흥 835-5050	진도 542-5888
	여수구룡 642-1400	함평 324-3800					